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4년 1월

선교편지 제 62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2014년도에도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필리핀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에서 발표한 2014년도 법정 최저 인건비는 '하루'에 399 페소 (하루에 약 \$9)로서, 실제로는 더 낮은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거의 한달에 한번 정도 이발소에 가게 되는데, 이발소의 청결 상태라든지 이발하는 중에 선풍기가 쉬지 않고 돌아,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 붙어도 불평하지 않는 까닭은, 이발을 한 이후에 이발소를 나가는 발걸음이 매우 가볍기 때문입니다. 이발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가 단골로 가는 곳은 팁을 포함하여 \$2 정도면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이발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까지 도로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매달 거의 한, 두번씩은 운전 중 자동차 타이어에 박힌 못을 뽑기 위하여 정비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불안하게 보이는 도구로 자동차 바퀴를 들어 올려 타이어를 빼고, 물 속에 집어 넣어 못이 박힌 위치를 찾아내고, 익숙한 솜씨로 못을 뽑아 내고 수리를 하는데, 더운 날씨에 기다리고 있어도 전혀 불평이 나오지 않는 것은 수리 비용이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적은 생활비로도 살만한 곳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자체 생산이 되지 않고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전자 제품, 식품, 공산품, 각종 부품 등의 가격은 인건비와는 달리 현지 생활과 어울리지 않는 매우 비싼 값을 지불 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 선풍기 정도 외에는 필리핀에서 자체 생산하는 전자 제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능이 단순한 전자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수입품들은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달에 학원 사역에 사용할 전자 울개를 구입하였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을 눈물을 머금고 거의 40% 이상 더 비싼 가격에 구입 해야만 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필터나 오일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데 거의 \$80 정도를 지불해야 하고, 누가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수입한 트로피카나 (Tropicana) 오렌지 주스는 \$7 정도입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가격 부담을 많이 느낄 정도인데,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일반 현지 서민들에게 있어서 신제품이나 수입품들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에 불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 난 것을 고쳐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던 중고품을 사는 것이 아주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모든 서민이 즐겨찾는 '우까이우까이 (Okay-Okay)' 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모든 제품을 망라한 '중고품'만을 파는 곳입니다. 근처에 들어서면 형용할수 없는 냄새가 코를 찌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천(형겅)으로 수제품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제 아내가 천을 찾기 위하여 자주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헌 옷으로부터, 낡은 신발, 골동품같은 전자 제품(?)은 물론이고, 심지어 입던 속 옷까지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카이우카이' 시장과 함께 동네마다 고장난 전자 제품을 수리하는 전파상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보증 기간이 지난 전자 제품이 고장난 경우 수리해서 사용한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 까닭에, 수리해 가며 사용하는 이곳 환경이 새롭기까지 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이곳에 처음 부임했을때부터 소속된 선교 기관에서 권고하는 비교적 안전한 곳에 월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사역을 하는 학교에 걸어 다닐수 있는 곳으로 이웃에 몇몇 선교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은 소속된 선교 기관의 결정에 따라, 혹은 안식년이나 건강 문제등으로 인하여 선교지를 떠나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동이 용이 하도록 살림이 비교적 단출합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월세가 약간 비싸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갖추어져 있는 (Furnished) 집에서 세를 살고 있습니다. 침대부터 식탁, 세탁기, 냉장고등 기본적인 살림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 초기 정착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가운데 사역을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를 들어 살면서 전자 제품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낡은 '세탁기'와 '냉장고'로 인하여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탁기는 집 밖의 수도가 옆에 지붕이 있는 칸막이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오래된 제품인지 외관의 본래 색깔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낡았고, 분명히 작동되는 요란한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세탁물의 얼룩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물이 세는지, 세탁을 한번 하고 나면 세탁기 주변이 온통 젖어 있어서, 모기 번식의 온상지가 되어 버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 이유로 집 주인에게 새 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청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거의 일 년만에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아마 찾아 보기 힘들 '짤순이'가 별도로 붙어있는 구형 세탁기를 저희의 비용으로 상당히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하여 집 안의 욕실에 설치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 안에 있는 냉장고였습니다. 그 동안 많은 문제와 고장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집 주인은 신속하게 작은 냉장고로 임시 교체하고 수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5년 이상을 불평할 수 없이 지내 온 것입니다. 외관이 점점 녹 슬어서 보기 흉하게 되어가고 있는 까닭에 하얀색 페인트로 덧 칠을 하기도 하고, 발판이 낡아서 기울어지면 나무로 보강을 해서 전혀 새로운 모양의 냉장고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비의 반 이상은 이 낡은 냉장고로 인하여 발생되리라 짐작 되지만, 새 냉장고로 교체해 달라는 말을 꺼낼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같은 문제로 한달에 두번씩이나 고장이 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음식이 상하는등 불편함이 계속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저희 비용으로라도 비싼 새 냉장고를 사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못한 가운데 집 주인이 저희가 사용했던 냉장고에 대하여 마침내 고대하던 수리 불가 선언을 하고, 중고품이 아닌 '새' 냉장고로 교체를 해 준 것입니다. 비록 새 냉장고라 할지라도 세탁기와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구형 냉장고 이지만, 이곳에서 새 전자 제품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치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처럼 정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삶은 마치 영화처럼 미래에서 과거를 방문하여 사는 듯한 느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을 일깨워 주는 소소한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언제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편함 가운데에서도 만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후 5:1)**



필리핀은 스페인과 미국의 오랜 식민 통치로 인하여 모든 삶 가운데 동, 서양이 혼합된 다양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음식, 문화는 물론, 심지어 생김새에서도 그 역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에서 확연하게 그 뿌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1500여년도부터 시작된 스페인의 오랜 식민 통치로 인하여 국민의 90% 이상이 카톨릭 신자로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카톨릭이 공식 국교가 된 나라입니다. 또한 근대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식민 통치의 영향으로 한국 보다는 선교 역사가 약간 짧지만, 1899년부터 미국인 선교사가 필리핀에 파송이 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개신교가 전체 인구의 약 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즉, 필리핀 국민의 96% 이상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알고, 또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6여년의 짧은 선교 기간이지만,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아직까지 한번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로서 처음 부임을 한 이후에, 현지 여러 교회의 예배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현지인들의 격의없는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함을 통해서 짧은 시간내에 현지 교인들을 이해하고, 저희들의 사역 방향을 결정하는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5년여전 해변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마을 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한 각종 소그룹 모임도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적극적인 해변 교회의 여전도 회장이 마을 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 저희들도 주중에 시간을 내어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여전도 회장의 인도에 따라 모두들 웃음 꽃이 만



발한 가운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참석한 마을 부인들 모두 카톨릭 영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릴적부터 카톨릭 문화에 매우 익숙하여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활기찬 성경 공부가 그 날의 성경 공부 주제에서 벗어나더니, 예상치 않았던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해변 교회의 여전도 회장으로 부터 참가한 마을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경과는 달리 자신들이 짐작하고 있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로 난상토론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남녀 구분없이 아담과 하와를 같은 모양으로 동시에 창조하셨는데,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남자의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의 여자의 모습으로 변화 되었다는 것으로 결론 지어질 상황 있었습니다. 모두들 창조에 대하여 들은 바는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모르고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축복, 회개, '용서', 은혜등과 같은 단어들이 모두의 언어 속에서 매우 익숙하게 말하여 지고 있지만, 성경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보편적인 단어들로 변화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비록 지난 600여년 동안 카톨릭이 삶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렸지만, 필리핀의 전통 토속 종교와 깊게 혼합이 되어 전혀 새로운 형태로 변화 되어 가고 있고, 신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이 매우 적을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모두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말씀이 없는 신앙 생활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롬 10:2)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학원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가능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에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사역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리핀 내에서 성경 보급을 주된 사역으로 하는 선교 단체들을 통하여 저렴하게 많은 성경을 확보하여, 그동안 해변 교회와 마띠 교회는 물론이고, 마띠 고등학교, 마띠 교도소 및 주변 마을에 거의 매년 상황에 따라 현지어, 표준어 및 영어 성경을 보급해 왔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시상을 할 기회가 있으면, 비교적 좋은 성경을 구입해서 잘 보관하며 볼 수 있도록 성경을 선물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이 있어서, 저희 차례가 언제 될 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에 위치한 국제 기드온 협회 (Gideon International) 지부에 연락을 하여 다량의 성경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회가 되는대로 학생들에게 마치 주일학교 어린이를 대하듯이 이곳에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시청각 자료를 총 동원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많은 시간과 준비를 통하여 성경 읽기와 암송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재미있게 듣고, 순종하며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왜 이곳까지 부르셨는지 그 귀한 소명을 다시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2014년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이 성경에 더욱 더 가깝게 가기를 위하여 스파마스트 대학의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QT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이곳 학생들에게 QT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만, 이제는 말씀을 자력으로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하기에 학생들의 많은 호기심 가운데 건강한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QT를 처음 시작하는 어린 학생들의 심령을 순간마다 만져 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셔서, 온전히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 17:17)

기도 요청

1. 디고스 지역의 교회 건축을 위하여
2. 2014년도 마띠 고등학교 장학 프로그램을 위하여
3. 스파마스트 대학 선교를 위하여
4.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변경을 위하여
5.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후원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